

민주당 정치개혁안 발표 연설

지난 여름에는 태풍과 수해가 우리 국민들한테 엄청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시에서부터의 여러 가지 불안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전쟁에 대해서 많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민생문제가 산적해 있는 가운데 지금은 북한 핵 문제가 우리 국민들을 또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들을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잘 정리해 나가고 또 장기적으로 제도를 개혁해 나가고 해야 될 정치권이 지금 스스로 개혁되지 않고 또한 많은 우리 사회의 개혁과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제 할 일을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우리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대한 욕구도 높고 또 아울러서 여러 분야에 있어서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대통령선거를 불과 58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만 역시 이 선거가 가장 깨끗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치루어져야 올바른 정치의 틀이 갖추어지고 또 올바른 정치의 틀이 갖추어질 때라야 우리 사회 여러 가지 산적한 과제들을 제대로 풀어나갈 수 있다 그런 인식 때문에 국민들도 이번 선거가 공정하게 그리고 돈이 들지 않는 선거로 깨끗하게 이렇게 치

러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선거의 과정에서 개혁에 대한 청사진을 국민들한테 제시하고 또 선거 이전에라도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실행에 옮겨줄 것을 국민들은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오늘 이미 나와서 여러 차례 얘기가 되어 있던 개혁의 과제들이지만 그것이 현재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않은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이 시기라도 개혁의 과제들을 다시 여러분들께 제시하고 이번 선거의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이 부패척결과 선거개혁에 대해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저는 이것이 관련법 개정의 가장 좋은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서 이번 국회내에서 처리 할 수 있는 개혁 과제들은 처리하자는 것으로 당내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법안들을 하루빨리 준비해서 제출할 것을 그 동안에 촉구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당내에서 이와 같은 개혁과제의 준비는 제대로 안되고 있던 가운데 선거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그래서 이제 당에서 그 동안에 처리하지 못했던 이 개혁과제들을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간추려서 이것이 국회에 제출되고 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선거대책위원회에다가 정치개혁추진본부를 설치하고 그 본부로 하여금 개혁과제를 그 동안에 검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로써 이제 정치개혁추진위원회가 몇 가지의 개혁방안들을 오늘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이고 또 당연히 그 리해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가 거의 모아져있는 것입니다. 각 정당도 각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최대한 신속히 이 문제들을 다루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은 입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해 나가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전체 11개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개혁추진위원회에서 발표를 드릴 것이고, 이 11개 개혁과제 중에서 제가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대통령선거 때부터 지난 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에 제안한 대로 선거공영제를 대폭 확대하고 미디어선거·인터넷선거를 활성화함으로써 돈이 들지 않는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 만일에 이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했던 법안을 손질해서 통과시키지 않으면 이번 대통령선거 또한 많은 돈이 들어가는 소위 돈선거 조직선거 또는 동원선거가 됨으로써 선거결과에 대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 선거과정의 정당성에 관해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가 과연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개혁은 이번 선거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개혁은 선거운동 방법이다. 따라서 돈 안드는 선거 깨끗한 선거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안했던 선거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서 이번 대통령선거를 할 것을 한나라당과 이회창 후보 그리고 국회에 대해서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확대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체의 신설이라든지 권력형 비리를 전담할 시한부 특별검사제도의 상설 등은 부패척결의 중대한 진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선거관리에 관한 것은 이미 말씀드렸고, 오늘은 제가 선거법 개정안과 제안된 고위공직자에 한해서 재산 형성과정을 소명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안에 대해서 특별히 이 자리에서 강조를 드리고 나머지 부분 또한 다 함께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될 것을 제안 드립니다.